

都市주부들의 契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A Study for the City Housewives' Participating Behavior of "Kye" Meeting

한국체육대학
강사 김시월*

Korea National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Lecturer : Si Wuel Kim

— 목 차 —

I. 서론	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I.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ooperative meetings from the past in our country. "Kye" is the most popular and current existing meeting of them in our society. Therefore, study of "Kye" at this point will be useful for life, attitude, value in urban area.

The concret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1) Participating rate of the city housewives' "Kye" meeting. (2) Purpose of the city housewives' "Kye" meeting. (3) The order of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mong the socio-economic variables, the family life cycle variables, and the residence variables on the city housewives' "Kye" meeting.

For the purpose of this main study, 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housewives living in Seoul and collected during the six months, from November, 1989 to April, 1990. And method of data analysis for this survey was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Participating rate of city housewives' "Kye" meeting is 52.2%. (2) Purpose of city housewives' "Kye" meeting is in the order of "for saving", "for friendly gatherings", "for commodity purchase". The order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 (3) among the socio-economic variables is the age of respondents ($\beta: .187$), the average income of all house members ($\beta: .177$), and the schooling years

* 건국대학교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β :-.147), (4) among the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s the family life cycle(β :-.261), number of children(β :-.212), (5) among the residence variables is the duration of current residence(β :-.221), kind of house(β :-.118).

Comparing the past studies, the purpose of "Kye" meetings has changed from the family centered events method such as worship or marriage of family members to out of the family and friends centered events such as social gatherings among the people in urban community.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美風良俗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서로를 아끼는 정겨운 모습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契, 두레, 품앗이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독특한 한국적인 美가 담긴 고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과거 특히 농경사회에서 나타난 서로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기능에서는 많이 변화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서로를 돕는 미풍양속은 지속되고 있다. 서양에 만연한 이기주의 사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협동, 단결은 한국인의 생활문화나 사회성¹⁾ 그리고 삶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원래 契의 발생이 전통적인 한국 농촌사회라고²⁾ 했으나, 그 파급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契의 형태가 도시까지 그대로 옮겨지고 있으며, 契의 형태도 변형되어 발전했을 것이다. 즉, 도시에서의 이웃관계와 협동은 동창생이나 직장동료 등의 특수한 범주의 사회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과 도시사회의 정보교환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으로 활용될 수 있다.³⁾ 도시에서 이웃들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은 지리적인 인접성, 또는 그들의 유사성 및 친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화의 증가(1960년도 28.0%가 1990년 74.0%), 인구의 노령화(1960년 전인구의 평균수명이 55.3세에서, 1990년 68.7세로 증가)⁴⁾, 그 밖에 농촌의 기계화 등은 농촌의 소수의 단합을 더 필요로 하고 더 추진하는 결과를 빚었고⁵⁾, 또 도시화는 도시내에

서 적응하기 위한 동창회, 동문회, 향우회, 문중회, 종친회 등과 같은 우리 고유의 혈연이나 가족주의에서 발생한 단체와 모임관계를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단합을 위한 것으로써 契가 그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정한규⁶⁾에 의하면, 1986년을 기준으로 현재 契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40.8%, 중소도시 41.2%, 농어촌 47.0%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조사분석을 보면,⁷⁾ 우리나라의 도시 가구중 25.7%가 契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표본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농어촌에 비해서 낮은 수이기는 하나 아직 도시에서도 契가 뿌리 깊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契에 대해서는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대체로 역사적인 고찰과 농촌에 대한 접근을 했다.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에 농촌을 중심으로 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도시에서의 契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까닭에, 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들의 생활에 契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관련변수, 가족주기관련변수, 거주지 및 출생지 관련변수들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II. 이론적인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기존의 契 연구에 있어서 접근 시각

지금까지의 契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경제학, 사

회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왔다.

김시월⁹⁾은 契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가정학 분야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가정학회지와 가정관리학회지를 창간호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분석해 본 후 가정학 분야에서의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제학적인 맥락에서 契를 본다면, 우리사회 저변에서 발달되어 온 서민금융이며, 서민과 소영세기업 금융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왔고, 현재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契의 성격을 경제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현대의 제도권 금융기관 등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하에서 비록 자금을 창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본원적인 의미로서의 금융기관 즉, 자금중개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러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契가 자금중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적 성격을 벗어나서 현재와 같은 경제 조직으로 변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⁰⁾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契의 서민성을 강조한다든지 契 운영의 민주성능을 부각시키는 논의가 있으며¹¹⁾ 촌락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협동방식의 하나로 契의 존재 의의를 평가하는 시각¹²⁾ 등 다양하나, 대체로 契 공동체론의 적극적, 소극적 영향하에 제기된 것으로 결국은 통합적인 면*을 지지, 강화하려는 시각이다.¹³⁾

또한 중년 여성의 契를 통해서 조성된 자금이 점조직을 통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사채시장의 젖줄이 되고 있는 契라는 조직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의 부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¹⁴⁾

그러나 契 본래의 성격이 공동체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모든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 일치하는 시각이다.(김삼수¹⁵⁾, 백남운¹⁶⁾, 김병하¹⁷⁾, 장동섭¹⁸⁾, 엄희

영¹⁹⁾) 契의 연구는 도시를 배경으로 조사를 행한 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를 연구했을 경우도 농촌과의 비교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2. 契 선호와 관련변수

이만갑²⁰⁾의 연구에서 契의 목적 및 그 특성을 보면, 주로 婚喪甲契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상을 당한 후 그 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상을 당했을 때의 협동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契를 참여한 가구원의 연령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한규²¹⁾의 2,385 가구의 契 실태를 자세히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契라는 것은 연령이 높을 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직업계층이 높을 수록, 소득이 많을 수록 契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일 수록 契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契결사체 참여가 활발한 마을일 수록 주민간의 사회적 유대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사회통합의 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통합론에 입각한 통합가설과, 이와 대비되는 격리가설을 추출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해본 김석준²²⁾의 연구에서는 契결사체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 마을전체로 볼 때, 주민들의 사회적 유대를 전반적으로 강화 시킨다기 보다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문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인 변수와 거주공간에 대한 애착감을 가미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저축부²³⁾의 저축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契에 참여하는 목적과 관련된 변수에서, 지역,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 주택의 소유형태, 가구주의 직업, 월평균 소득별로 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契의 선호와 관련된 변수는 연령, 학력, 거주지, 수입, 가구주의 직업,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볼 수가 있다.

3. 契의 목적

契의 종류 및 목적은 시대적인 흐름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목적을 살펴보

* 계의 사회적 역할에 공동체가 지닌 사회통합적 특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통합론적이라고 한다.

면, 많은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다.

손인철²⁴⁾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성행된 契는 文武間的 반목을 없애고, 우호적인 교재를 행하기 위한 문과 무간의 契 조직도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기에 이르러 국가재정의 파탄과 官吏의 착취가 심하여 서민의 생활이 곤란하게되어,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기관의 필요로 契가 보의 성격을 농후하게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김필동²⁵⁾에 의하면 契는 조선시대 이후 동일 지방에서 수 명 또는 수십 명, 많을 때에는 수백 명이 회취하여 동일 목적 아래 일정한 규약을 정해 조합 또는 결사단체를 만들어 상호 금품을 각출하여 자본으로 삼고 利殖活動을 하였고, 노동을 제공하여 생산상의 단순협업을 수행하였으며, 촌락 자치와 공공사업을 위한 여러가지 협동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契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契의 종류 및 그 목적을 보면, 첫째, 사교를 목적으로하는 契 : 이 범주에 속하는 契는 계원들의 친목과 풍기 유지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契 : 이는 도로, 교량, 보 등의 건설과 수리 및 토목에 관한 것과 서당, 동사 건립을 위한 교육, 종교적인 사업이며, 셋째, 상호부조와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契 : 계원가족의 장례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과 혼사준비를 위한 契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겠다.²⁶⁾

1936년 契의 목적별 분포를 보면, 상호부조, 공공사업, 산업진흥, 금융, 오락, 제사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일합방 이후 근대적사회의 성격과 식민통치의 성격이 혼합된 사회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契조직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데, 文定昌²⁷⁾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부락의 자치단체인 동리제는 읍면제도의 실시와 동리단위의 행정기구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었고, 둘째, 학제는 학교교육의 실시, 서당의 폐쇄에 따라 점차 소멸되었고, 셋째, 각종의 利殖契는 금융기관의 발달에 따라 위축되었고, 넷째, 혈족단체인 肉契, 花樹契는 서양개인의 영향으로 그 조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최재석²⁸⁾은

생산, 利殖,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契(經濟的 집단), 동리의 공공비용의 支辨을 목적으로 하는 契(政治的 집단), 성원의 복리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契(복지적 집단), 조상의 상제 혹은 부락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契(宗敎的 집단), 성원의 자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契(敎育적 집단), 성원의 친목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契(레크리에이션 집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왕인근²⁹⁾은 金融活動, 生産協同, 친목과 隣保相助, 敎學的의 목적이나 학습의 장려, 관혼상제의 비용부담 경감 등 광범위한 목적을 이어 내려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契를 기능별로 보면 冠婚喪祭時的 相互扶助를 주목적으로 하는 婚喪契·喪布契·爲親契·扶助契 등 共濟的인 성격의 契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강창규³⁰⁾가 창원, 중원 및 단양군의 里·洞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즉 契를 기능별로 보면 公益契, 共濟契, 親睦契, 利殖契 등 다섯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바, 표본리·동에서 파악된 契의 총수는 669개에 달하였는데, 이 중에서 관혼상제의 상호부조를 주목적으로하는 共濟的인 성격의 契가 56%로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公益契가 많았고, 産業契와 利殖契는 각각 2%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58년 이만갑³¹⁾이 조사한 특정 지역에서의 契의 목적을 보면 주로 상호부조나 협조를 위한 契가 우선임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도홍렬³²⁾의 연구 사례에서 쇠창계, 부조계, 혼상갑계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지역의 흐름을 보면, 이만갑은 경기도 광주군 일대를 1958년부터 대략 10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1958) 때는 발견된 19개의 契 종류 가운데 10개의 종류가 혼상갑계로 공리적인 契가 주종이었다. 그러나 2차 조사(1969년)에서는 혼상갑계가 상당수 감소했고, 영리적 契가 상대적으로 다수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3차 조사때(1980)에 와서는 혼수상갑계에 참여한 사람은 극히 소수로 줄어든 반면 영리적 契는 여전했지만, 특히 관광역행을 위한 契와 친목계가 상당히 많아졌

다. 이는 우리의 현대상을 잘 반영한 흐름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국은행 조사부³⁹⁾에 의하면, 친목도모(32.0%), 주택자금마련(21.4%), 자녀교육비마련(19.5%), 부업자금 마련(8.6%), 관혼상제비 마련(5.8%), 생활용품 마련(4.8%),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도시의 경우는 契의 기능 중 경제적인 축적의 기능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문제

첫째, 현재 契의 선호도를 살펴 보고, 둘째, 현재 가입하고 있는 契의 목적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세우면 다음과 같다.

1. 契참여도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계가 있는가?
2. 契참여도는 가족주기와 관련된 변수와 관계가 있는가?
3. 契참여도는 출생지와 거주지 및 주거형태와 관련된 변수와 관계가 있는가?
4. 契참여도는 위의 모든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5. 주부들이 선호하는 契의 목적은 위의 모든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V.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본인이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 지역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의 학교를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간접 설명 후 그 학생의 어머니가 기록하게끔 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신뢰도 측정수단 중의 하나인 크롬바의 알파계수(Crombach's alpha)를 구한 결과 계수가 약 0.88로 나왔다. 그 내용을 기초로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 조사는 1989년 11월 초부터 1990년 4월 5일 까지 6개월에 걸쳐서 실시했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했으나 그 작성에서 미비한 것을 제외하고, 분석자료로 이용한 것을 총 366부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SPSS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선행연구를 과바탕으로 조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또 조사지역도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서울에 국한했고, 표본추출도 무작위가 아닌 점을 들 수가 있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개별면접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이다.

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 사회 경제적 관련변수

연령은 40세 이상~50세 미만이 가장 많은 35.2%였고, 그 다음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33.6%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9.4세였다 <표 V-1>. 학력은 대졸 및 전문대졸이 가장 많은 39.1%였고, 그 다음은 고졸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직업은 전문, 관리, 사무직이 74.4%로서 대부분이 화이트 칼라에 속했으며, 가족 전체의 월평균 수입은 90만원 이상~110만원 미만이 26.2%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평균수입은 1,140,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인 1,304,870(경제기획원, 1990)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주기와 관련된 변수

가족주기는 첫자녀교육기가 34.4%로 가장 많으며, 첫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21.6%, 첫자녀성년기가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표 V-2>, 자녀수는 2명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2.3명이었다. 응답자의 생존해 있는 평균 형제자매수(본인 포함)는 약 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에 설명한 자녀수와 비교해 볼 때, 세대간의 차이에서 거의 반이상의 자녀수의 감소를 볼 수 있다.

3) 출생지, 거주지 및 주거형태와 관련된 변수

〈표 V-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상태

연 령 (단위:세)			배우자의 직업		
항 목	f	%	항 목	f	%
20세이상-30만미만	57	15.6	전문직	71	19.7
30이상-40미만	123	33.6	관리직	124	34.4
40이상-50미만	129	35.2	사무직	73	20.3
50이상-60미만	52	14.2	판매직	59	16.5
60이상	5	1.4	서비스직	4	1.1
합 계	366	100.0	생산, 운송직	17	4.7
평균	39.4 세		무직	12	3.3
			합 계	360	100.0

학 령			가족의 월평균수입 (단위:만원)		
항 목	f	%	항 목	f	%
무 학	3	0.8	30이상-50미만	53	14.5
국민학교 졸업	16	4.4	50이상-80미만	58	15.9
중학교 졸업	30	8.2	80이상-100미만	38	10.4
고등학교 졸업	140	38.2	100이상-110미만	95	25.9
대학교 졸업 (전문대 포함)	143	39.1	110이상-150미만	25	6.8
대학교 졸업 이상	34	9.3	150이상-200미만	52	14.2
합 계	366	100.0	200이상	45	12.3
			합계	366*	100.0
			평균	114 만원	

* 사별이나 별거, 이혼에 해당하는 6사례는 제외하여 사례수가 360임.

〈표 V-2〉 조사대상자의 가족주기 관련변수

가족생활주기*			자녀수		생존형제수		
항 목	f	%	f	%	f	%	
1. 형성기	26	7.1	0명	26	7.1	-	-
2. 자녀출산 및 양육기	79	21.6	1명	61	16.7	5	1.4
3. 자녀교육기	165	45.1	2명	137	37.4	20	5.5
4. 자녀성년기	62	16.9	3명	86	23.5	43	11.7
5. 자녀결혼기	29	7.9	4명	39	10.7	91	24.9
6. 노년기	5	1.3	5명	12	3.3	79	21.5
			6명이상	5	1.4	128	35.0
합 계	366	100.0		366	100.0	366	100.0
			평 균	2.3명	4.9 명		

* 가족생활주기 설명

1. 가족 형성기: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전까지
2.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첫자녀 출산에서 국민학교 입학전까지
3. 자녀 교육기: 첫자녀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기까지
4. 자녀 성년기: 첫 자녀가 대학재학중이거나 취업, 군복무, 가사협조기
5. 자녀 결혼기: 첫자녀 결혼에서 막내자녀 결혼까지
6. 노년기: 막내 자녀 결혼 후에서 부부만의 동거 후기

〈표 V-3〉 조사대상자의 거주 관련 변수

출생지			성장지		거주가옥의 종류			
사항	f	%	f	%			f	%
대도시	110	30.1	191	52.2	단독주택		126	34.4
도시	104	28.4	98	26.8	연립주택		33	9.0
읍	49	13.4	31	8.5	아파트		186	50.8
면	103	28.1	46	12.6	기타(상가 포함)		21	5.7
합 계	366	100.0	366	100.0			366	100.0
거주지의 소유여부			5년간의 이사횟수		현거주지의 거주기간			
	f	%	f	%			f	%
자가	256	69.9	0번	100	27.3	1년 미만	81	22.1
전세	96	26.2	1	118	32.2	1년 이상-2년 미만	86	23.5
월세	8	2.2	2	81	22.1	2년 이상-3년 미만	55	15.0
기타	6	1.6	3	46	12.6	3년 이상-4년 미만	49	13.4
			4	14	3.8	4년 이상-	95	26.0
			5	7	1.9			
합 계	366	100.0		366	100.0		366	100.0
			평균	1.4번			53.4개월(4년)	

응답자의 출생지를 보면 대도시와 도시를 합한 도시의 경우가 과반수 이상인 58.5%로 나타났으며(표 V-3), 또한, 결혼전 주된 성장기인 10세 이후부터 결혼전까지 주로 거주하던 곳은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현거주지의 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는 4년 이상이 26.0%로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났고, 평균 거주기간은 53.4개월(4년)이었다. 지난 5년간의 이사경험 횟수를 보면, 1번이 32.2%, 2번이 22.1%로 과반수를 넘었고, 평균 이사횟수는 1.4회 였다. 현재 거주하는 거주가옥의 종류는 과반수 이상(50.8%)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의 소유형태를 보면, 자가인 경우가 69.9%로 가장 많았다.

4) 도시 주부들의 契에 대한 선호도

과거 이만갑³⁰⁾의 농촌을 대상으로한 가구별 契가입율을 보면 336가구중에서 38.1%였으며, 도홍렬³¹⁾의 연구에서는 농촌 사람의 契가입율이 21.2%에 불과했고, 정한규³²⁾(1986)의 조사에서 가입율은 농어촌(46.96%), 중소도시(41.07%), 대도시(40.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³³⁾의 도시가구를 대상으로한 조사결과를 보면, 도시가구중 25.7%가 契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

〈표 V-4〉 도시주부들의 契참여 분포

契참여 상태	f(%)
비참여	175(47.8)
참 여	191(52.2)
합 계	366(100.0)
평균 契참여수	1.1

은 연구들이 어떤 특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농어촌에 비해서는 도시의 契참여율이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도시 주부들의 契참여도를 알기 위해서 현재 주부들이 가입여부를 조사할 결과(〈표 V-4〉), 契에 가입하고 있는 주부는 전체의 52.2%로 과반수가 조금 넘었다. 이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契에 가입한 수가 높은 편이며, 아직도 도시에서 契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契참여자의 평균 契참여수는 2.1이었고, 모든 응답자의 전체 평균 契참여수는 1.1로 나타났다(〈표 V-1〉).

5) 주부들이 선호하는 契의 목적

우선, 주부들이 선호하는 契의 목적을 알기 위해

서 가입하고 있는 **협의**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목돈 마련과 **利殖**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친목도모와 어려울 때 일손을 돕는 친목과 상호협동을 위한 **협의**, 그리고 **패물(귀금속)**이나 **가전제품** 및 **고가의 가정용품** 마련을 위한 **협의** 등이다. <표 V-5>

전체중 35.5%의 주부가 친목을 위한 **협의**, 33.3%가 목돈 마련 **협의**, 그리고 3.6%만이 **패물(귀금속)**이나 **가전제품** 및 **값비싼 가정용품** 마련 **협의**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주부의 **협의**의 형태에서 **패물**, **가전제품** 및 **가정용품** 마련 **협의**는 거의 소멸상태이며, 친목 및 상호협조를 위한 **협의**는 아직도 이 각박한 도시사회에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이만갑³⁹⁾과 도홍렬³⁹⁾ 등의 과거의 연구를 보면, **협의**의 주된 목적이 집안의 큰 일인 혼사나 상제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도움과 일손의 도움을 위한 것을 주된 목적(婚喪甲**협의**)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목돈과 친목이 구분지을 수 없게 복합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⁴⁰⁾의 농촌 연구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비해서 혼상갑**협의**와 같은 상호부조적인 **협의**는 쇠퇴하고 쌀, 돈, 계 등의 영리적인 **협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에도 도시의 소비문화풍조가 침투함에 따라 친목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⁴¹⁾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가계가 가입하고 있는 **협의**의 목적을 보면, 주로 친목도모(32.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마련자금(21.4%)과 자녀교육비 마련(19.5%)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협의**가 친목도모 뿐 아니라 가계의 목돈마련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를 합하면 40.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친목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협의**의 참여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2. 연구문제검증 결과

1) **협의**의 선호와 관련변수와의 관계 검증결과

(1) **협의**의 선호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우선 사회경제적 변수와 **협의**의 참여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구했다.

$$Y_1 = 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e$$

Y_1 = **협의**의 선호도(가입한 **협의**의 수)

X_1 = 연령(만나이)

X_2 = 학력(등급별)

X_3 = 가구주의 직업(등급별)

X_4 = 월평균 수입(만원)

<표 V-6>에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로 선택한 4개의 변수가 종속변수인 **협의**참여수를 12.0%($R^2=.12$) 설명해 주고 있다. 개별회귀계수에서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 **협의** 참여수를 의미있게 설명해 주며, 영향력의 정도는 연령($\beta: .187$), 월평균수입($\beta: .177$), 학력($\beta: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한 살 증가하면 **협의**참여수는 .03만큼 늘어나고, 월평균수입이 증가하면 **협의**참여수가 .003 더 증가하고 학력이 한 단위 높아지면 **협의**참여수가 오히려 .23만큼 감소했다. 나머지 가구주의 직업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V-6> **협의**가입과 사회경제적 관련 변수와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β)
종속변수: 협의 참여수		
독립변수:		
연령	.03160 ***	.18713
학력	-.22589	-.14764
가구주의 직업	.03506	.03681
월평균수입	.00347 ***	.17720
상수	.38291	.38291
R^2	.12	.12
사례수	366	.366
F		12.01622 ***

* $P < .05$ ** $P < .01$ *** $P < .001$

<표 V-5> 주부들이 선호하는 **협의**의 분포

선호하는 협의 가입 수	목돈 마련 협의		친목 및 상호협조 협의		물품마련 협의	
	f	%	f	%	f	%
비가입	244	66.7	236	64.5	353	96.4
1	81	22.1	76	20.8	12	3.3
2	26	7.1	36	9.8	1	0.3
3이상	15	4.1	18	4.9	—	—
합 계	366	100.0	366	100.0	366	100.0
평균		0.51		0.58		0.04

(2) 契의 선호와 가족생활주기 관련변수와의 관계
주부들의 契의 선호와 가족생활주기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구했다.

$$Y_2 = 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c$$

Y_2 = 契의 선호도(가입한 契의 수)
 X_1 = 가족생활주기
 X_2 = 자녀수
 X_3 = 형제의 수

〈표 V-7〉의 회귀분석결과 주부들의 契의 참여수(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가족생활주기(β :.474), 자녀수(β :-.212)의 순이었고, 나머지 독립변수인 형제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족생활주기가 한 단계 후기로 갈수록 契의 참여수는 .485만큼 증가하고, 자녀수가 한 명 늘어 날 수록 契의 참여수는 .246만큼 감소했다.

또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契참여수를 11% ($R^2=.11$) 설명하고 있다.

〈표 V-7〉 契가입과 가족생활주기 관련변수와의 회귀분석

	B	β
종속변수: 契참여수		
독립변수:		
가족생활주기	.48581 ***	.47460
자녀수	-.24633 **	-.21247
형제의 수	.00761	.00883
상수	-.10197	-.10197
R^2	.11	.11
사례수	366	.366
F		16.30205 ***

* P<.05 ** P<.01 *** P<.001

(3) 契의 선호와 거주지 및 출생지 관련 변수와의 관계

契의 선호와 거주지 및 출생지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회귀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Y_3 = 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c$$

Y_3 = 契의 선호도(가입한 契의 수)
 X_1 = 출생지(도시 1, 농촌 0)

X_2 = 주된 성장지(도시 1, 농촌 0)
 X_3 = 지난 5년간의 이사횟수
 X_4 = 현거주지의 거주기간(단위 : 월)
 X_5 = 거주가옥의 종류(단독주택 1, 그 외(아파트나 연립, 상가)0)
 X_6 = 거주지 소유여부(소유 1, 비소유 0)

위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V-8〉과 같다.

거주지 및 출생지 관련변수 중에서 주부의 契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현거주지의 거주기간(β :.218), 거주가옥의 종류(β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 契참여수와 거주지 및 출생지 관련변수와의 관계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β
종속변수: 契참여수		
독립변수:출생지	.12998	.04303
주된 성장지	-.17943	-.04913
지난 5년간의 이사횟수	-.03533	-.02902
현거주지의 거주기간	.00450***	.21848
거주가옥의 종류	.36942*	.11814
거주지의 소유여부	.28592	.08688
상수	.67034	.67034
R^2	.10	.10
사례수		366
F		6.96955 ***

* P<.05 ** P<.01 *** P<.001

며, 이들의 설명력은 10%이다. 즉, 현거주지의 거주기간이 한 달 늘어나면 契의 참여수는 .004 더 증가하고, 거주가옥이 단독주택일 수록 契의 참여수는 .369 만큼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에서 이주자를 시부와 군부간의 흐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이주자 중에서 시부에 시부으로 이동이 가장 많아서 1988년에는 전체의 71.1%, 1989년에는 전체의 74.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경제기획원, 1990). 따라서 도시에서의 이사빈도는 상당히 높으며, 거주지역 내에서 이웃과의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일 경우에 이웃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한 곳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웃과의 유

〈표 V-9〉 契참여와 변수와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β
종속변수: 契참여수		
독립변수:		
나이	-.02301	-.13625
학력	.01169	.01358
가구수의 직업	.00979	.01029
월평균 수입	.00305**	.15616
가족생활주기	.48305***	.47190
자녀수	-.22323**	-.19254
형제의 수	.01169	.01358
출생지	.16758	.05548
주된 성장지	.01195	.00327
지난 5년간의 이사횟수	.02280	.18738
현거주지의 거주기간	.00341**	.16534
거주가옥의 종류	.40768*	.13037
거주지의 소유여부	.02680	.00814
상수	1.25548	1.25548
R2	.196	
F	6.61552***	

* P<.05 ** P<.01 *** P<.001

대가 강화되는 경향이였다.

(4) 契참여와 전체변수와의 결과

전체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위에서 분류한 세 가지의 변수분류를 하나로 해서 전체 契참여에 미치는 정도를 본 결과 다음 〈표 V-9〉와 같다.

그 결과 유의한 변수는 가족생활주기(β :.471), 자녀수(β :-.192), 현거주지의 거주기간(β :.165), 월평균 수입(β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가 한 단계 후기로 가면 契참여수는 .483 증가하고, 현거주지의 거주기간이 한 달 증가하면 契참여수는 .003 증가하며, 월평균 수입도 만원이 올라 가면 契참여수는 .003 증가했다. 그러나 자녀수가 한 명 늘어나면 契참여수는 오히려 .223 감소했다.

2) 契의 목적과 관련변수와의 관계 검증결과

契의 목적과 관련변수와의 관계는 현재 주부들이 하고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契와 친목 및 협동契를 연구문제 1, 2, 3에 적용한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 각 목적별 契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와

〈표 V-10〉 契의 목적과 관련변수와 관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목돈 마련契 참여수		친목및 협동契 참여수	
	B	β	B	β
독립변수:				
나이	-.01628	-.16250	-.00511	-.04650
학력	-.01804	-.06118	-.07731	-.07770
가구수의 직업	.01449	.03308	-.00061	-.00099
월평균 수입	.00211***	.18163	.00099	.07818
가족생활주기	.17906*	.29483	.30681***	.46085
자녀수	-.03723	-.05412	-.18169**	-.24096
형제의 수	.00805	.02651	.00444	.00793
출생지	.09292	.11847	.08806	.04482
주된 성장지	-.03335	-.01539	-.01661	-.00699
지난 5년간의 이사횟수	.02861	.03960	-.00363	-.00458
현거주지의 거주기간	.00196**	.16034	.00082	.06165
거주가옥의 종류	.19385	.10448	.22393*	.11011
거주지의 소유여부	.07705	.03946	-.01034	-.00483
상수	1.25548	1.25548	.03954	.03954
R2	.114		.149	
F	3.49925***		4.75597***	

* P<.05 ** P<.01 *** P<.001

크기를 보기 위해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V -10>과 같다.

우선 목돈 마련을 위한 契의 참여수와 관련변수 사이의 영향의 크기 순서를 본 결과, 가족생활주기(β :.294), 월평균수입(β :.181), 현거주지 거주기간(β :.160)의 순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었으며,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4%였다.

이는 응답자의 가족생활주기가 한 단계 후기로 갈수록 목돈 마련을 위한 契참여가 .179만큼 증가하고, 월평균 수입이 만원 증가할수록 목돈 마련을 위한 契참여도 .002만큼 증가하였으며, 현거주지의 거주기간이 한 달 늘어날수록 목돈 마련 契 참여수도 .001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수입이 많을수록 목돈 마련 契에 참여하며, 한 곳의 거주기간이 길어 신용도의 확립도 목돈 마련 契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는 목돈 마련 契가 안고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契가입 구성원의 제약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친목이나 상호 협동을 위한 契의 참여수와 관련변수 사이의 영향을 미치는 크기의 순서를 보면, 가족생활주기(β :.46), 자녀수(β :-.240), 거주가옥의 종류(β :.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였다.

이것을 비표준화계수로 자세히 보면, 가족생활주기가 한 단계 후기로 갈수록 친목이나 상호협동을 위한 契참여수도 .306 만큼 늘어나고, 단독주택일 경우일수록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에 비해서 .225 만큼 증가했으며, 반면에 자녀수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친목이나 상호협동을 위한 契참여수는 .174 만큼 감소했다.

이는 단독주택일 경우가 아파트나 연립 등의 경우보다 이웃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주부의 가사역할의 증대로 인한 유희노동의 감소를 알 수가 있고, 가족생활주기가 후기로 접어들수록 친목을 위한 契의 선호성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사람들은 전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점차 이질화되고 단자화되어 가는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의

식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한 고헥경⁴⁰⁾, 최협⁴¹⁾의 연구결과와 비슷했다.

VI. 結論 및 제언

공동체 의식의 한 방법으로 본 契는 본질적인 의미와 형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契가 현재 도시 주부들의 생활주변에 어느 정도 있고, 契의 참여수와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아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본인이 작성한 설문지로 1989년부터 6개월간의 설문지회수로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契에 가입하고 있는 도시주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2.2%이고 契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도시주부는 47.8%였다. 이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契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아직도 도시에서 契가 성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고, 도시주부의 契참여수의 평균이 個人當 1.13이었다.

둘째, 현재 도시주부들이 가입하고 있는 契의 목적을 분류한 결과 친목이나 상호협조를 위한 契, 목돈 마련을 위한 契, 필요한 물품 마련을 위한 契의 순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물품마련을 위한 契는 그 자취가 사라져 가고 있다.

셋째, 도시주부의 契선호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관련변수를 본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契참여수가 증가하고 반면에 학력은 올라갈수록 契참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시주부의 契선호도에 미치는 가족생활주기 관련변수를 본 결과 가족생활주기가 한 단계 후기로 갈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감소할수록 도시주부의 契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시주부의 契선호도에 미치는 거주지 및 출생지 관련변수를 본 결과 현거주지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가옥이 단독주택일수록 도시주부의 契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契참여에 있어서 모든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본 결과 가족생활주기가 한 단계 후기로 갈수록, 현거주지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契참여도는 높았다.

일곱째, 契의 목적과 모든 독립변수와의 관계에서 우선 목돈 마련을 위한 契참여와 관련변수간의 관계를 보면, 가족주기가 후기로 갈 수록, 수입이 많을 수록, 현거지주의 거주기간이 길 수록 목돈마련을 위한 契참여도는 높았다. 그리고 친목이나 상호 협동을 위한 契참여수와 관련변수 사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보면, 가족생활주기가 후기로 갈 수록, 거주가옥이 단독주택인 경우에 친목이나 상호협동을 위한 契참여가 증가했으며, 반면에 자녀수가 적을 수록 친목이나 상호협동을 위한 契참여도가 높았다.

따라서 도시주부들의 契의 성향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친목과 협동을 위한 상호부조의 契가 우선적이었으며, 각박한 도시사회에서 서로의 도움과 협동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契가 우리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새로운 여가문화로 인한 매개체로 그 역할을 아직도 담당하고 있었으며, 산업화된 현시대에서도 따뜻한 온정이 남아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도시로 갈 수록 契가 사라져 간다는 기존의 연구를 어느 정도 반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동사회에서도 한국 전통의 契는 오랜 시일 동안 그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된다.

차 후의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동체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契참여의 전파 및 보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契에 가입하는 구성원 특성 및 목돈 마련 契의 액수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참고문헌】

- 1) 한상복,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문화 : 한국현대사회와 문화전통, 제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141.
- 2) 文定昌, 朝鮮農村團體史, 日本評論社, 東京, 1942, p.297.
- 3) E. des Brunner and W.C. Hallenbeck, American Society : Urban and Rural Pat terns,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1955, pp.129~130.
-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인구주택총조사, 1990. 10. 15.
- 5) 김 완, 한국의 농민층 분해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들베개, 1984, pp. 165~208.
- 6) 정한규, 契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1986, p.32.
- 7) 한국은행, 저축시장조사, 1989, p.46.
- 8)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1990, pp. 199~200.
- 9) 김시월, 契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새로운 접근, 건국대학교대학원 논문집, 제32집, 1991, pp. 275~290.
- 10) 박무송, 소비자 금융과 신용, 행림출판사, 1988, p.185.
- 11) 장동섭,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서민협동체로서의 契에 대한 연구—특히 이조시대를 중심으로”, 전남대 논문집 15, 1969, pp.1~41.
- 12) 이만갑,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한국연구총서 5집, 1960.
- 13) 김석준, “제주도 농촌 주민의 契결사체 참여와 사회적 유대”, 한국사회학 제22집, 한국사회학회, 1988, pp.117~141.
- 14) Kennedy, Gerald, Korean Fiscal Kye(Rotating Credit Association), “An Urban Accommodation in a Moderning Society”, Am the Dissertaion, Univ. Hawaii. 한인숙, 여성인력 활용정책 및 출산력 저하정책,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제3권 제2호, 1985, pp.105~106 재인용.
- 15) 김삼수, 한국사회경제사연구, 박영사, 1966.
- 16) 백남운, 조선契의 사회사적 고찰, 현대평론 7월, 1928, pp.23~38.
- 17) 김병하, “契의 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경상학보 7집, 1958, pp.57~119.
- 18) 장동섭, *op. cit.*
- 19) 염희영, 한국농촌의 부락구조, 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총서 9, 1967, pp.3~19.
- 20) 이만갑, *op. cit.*
- 21) 정한규, *op. cit.*
- 22) 김석준, *op. cit.*
- 23) 한국은행, *op. cit.*
- 24) 손인철,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민음사, 1984,

- p.245.
- 25) 김필동, “契연구의 성과와 반성·재정향-契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사회학연구 8,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5, pp.63~98.
- 26) 손인철, *op. cit.*
- 27) 文定昌, *op. cit.*, pp.302~330.
- 28)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85, pp. 325~326.
- 29) 왕인근, 현대의 농촌사회학-한국농촌사회학서선-, 박영사, 1983, p.305.
- 30) 강창규, 契가 리·동농업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상당인쇄사, 1969. p.37.
- 31) 이만갑, *op. cit.*
- 32) 도홍렬, “농촌의 사회구조와 협동조합운동의 참여에 관한 연구-경기도 2개 부락의 조사연구-”, 사회학론집 제2집, 사회학연구회, 1965, pp. 92~122.
- 33) 한국은행, *op. cit.*
- 34) 이만갑, *op. cit.*
- 35) 도홍렬, *op. cit.*
- 36) 정한규, *op. cit.*
- 37) 한국은행, *op. cit.*
- 38) 이만갑, *op. cit.*
- 39) 도홍렬, *op. cit.*
- 40) 최은영, 한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契-경기도 여주군 한 마을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41) 한국은행, *op. cit.*
- 42) 고헌경 외,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59.
- 43) 최 협, “한국사회·공동체 이념”, 한국사회학 제20집, 한국사회학회, 1986, pp.15~33.